

Petrobras, 에탄올 수출 400% 증가

2008년 1-11월 6억500만리터 수출 ... 브라질 에탄올 총 수출의 14.4%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 Petrobras의 2008년 에탄올(Ethanol) 수출량이 4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etrobras의 자회사 Petrobras Bio Energy는 12월1일 “2008년 1-11월 에탄올 수출량이 6억500만리터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400%의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8년 브라질의 전체 에탄올 수출량은 42억리터로 추정되고 있어 Petrobras 수출비중은 14.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Petrobras Bio Energy 대표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아시아, 미국 등의 바이오에너지 소비 확대 추세에 따라 에탄올 수출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Petrobras의 에탄올 수출량 가운데 1억리터는 일본, 나머지는 미국 및 유럽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수출량은 2008년 말까지 1억2000만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etrobras는 2012년까지 에탄올 수출량을 47억5000만리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소비는 세계 2위, 수출은 세계 1위로 2007년 에탄올 수출량은 32억리터에 달했으며, 미국이 20억리터, EU가 10억리터를 수입했다.

한편, Petrobras는 에탄올에 이어 바이오디젤 대량생산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Petrobras Bio Energy는 7월 말 북동부 바이아에 바이오디젤 No.1 5700만리터 플랜트를 건설한데 이어 8월 말에는 북동부 세아라에 No.2 5700만리터 플랜트를 건설했다.

No.3 플랜트는 중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주에 들어설 예정이며, 3개 공장을 합한 생산능력은 1억7000만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브라질의 전체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은 30억리터로 평가되고 있으며, 내수시장 소비량은 13억리터 정도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02>